



김민석 국무총리 베이징 방문 2일차 보도자료

【관련 국정과제】 119.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

-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6.23(화) 오전 칭화대학교 및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전시관을 방문한 후, 하계 다보스포럼 개최지인 다롄으로 이동하였다.
- 먼저 김 총리는 모교인 칭화대학교를 방문하여 치우 용(邱勇) 당서기 및 추이귀빈(崔国斌) 법학원장과 면담을 가졌다.
 - 치우 당서기는 칭화대 동문인 김 총리를 매우 환영한다고 하고, 특히 금년 칭화대 창립 115주년을 맞은 해에 김 총리가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.
 - 치우 당서기는 반가운 동문이 방문한 만큼 최근 칭화대학교의 발전상을 소개하고자 한다며, 칭화대학교가 중국과 아시아 내 최고의 대학으로 꼽힐 뿐 아니라, 글로벌 AI 부문 1위, 특허출원 수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도 우수 대학의 반열에 올라, 미국의 세계 대학 랭킹에서 6위를 차지하였다고 하였다.
 - 또한 한중관계 관련, 치우 당서기는 작년과 금년 양국 정상외교 방문을 통해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고,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중국은 ‘흠길 수 없는 이웃’이라고 언급했듯이 칭화대로서도 7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한국과의 인연을 중시하고 있는바, 앞으로 한중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 - 김 총리는 치우 당서기를 비롯한 칭화대 관계자들과 동석한 한국인 유학생 대표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, 20년만에 칭화대를

찾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.

- 김 총리는 금번에 짧은 베이징 체류 가운데서도 칭화대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, 칭화대가 개인적 인연이 있는 학교일 뿐 아니라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질 리더십의 산실이며, 나아가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한중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.
- 김 총리는 치우 당서기가 언급하였듯이 칭화대가 AI, 반도체, 의료,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우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, 앞으로 한국 대학들과 칭화대 간 학술 및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
- 아울러 김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고 하고, 특히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였다는데,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바, 칭화대가 양국간 우호관계 심화의 중심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
- 특히, 김 총리는 한중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, 양국 청년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서로의 정치, 경제, 역사,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.

□ 이어서 김 총리는 북경 시내에 위치한 첨단 과학기술 성과 전시관인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전시관을 방문하였다.

- 김 총리는 루 옌(卢彦) 베이징 인민정치협의회 부주석과 함께 중측 안내에 따라 전시관을 돌아보며, ▲AI, 자율주행,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전략적 신흥 산업 ▲퀀텀, 바이오, 로봇 등을 비롯한 미래 첨단 기술 ▲중국을 대표하는 첨단기술 기업들의 혁신 성과 등을 관람하였다.
- 이를 통해 김 총리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첨단기술 발전 현황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, 동 분야에서 한중간 상호 협력 확대를 검토해 나가면 좋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조정희 (02-2100-2109)
		담당자	서기관	이에은 (02-2100-2132)

